



열쇳말로 풀어본 2014 여행

세밀이 되면 자연스레 한 해를 돌아보게 된다. 올해는 여행과 관련해 다양한 변화와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역대 최고',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가 곳곳에 등장했다. 흥미롭게 읽어볼 만한 이야기 10개를 뽑아 정리했다.

글 박상현 기자



출국자 1천500만 명 시대

지난 10월까지 국경을 빠져나간 내국인은 1천336만 명이다. 월평균 133만6천 명꼴이다. 남은 2개월 동안 이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올해 출국자는 1천603만 명으로 전망된다.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해의 1천485만 명보다 100만 명 이상 많은 숫자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출국자 1천500만 명' 시대를 열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2005년 1천만 명을 처음 넘어선 뒤 9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셈이다. 올해는 전통적인 비수기인 3월과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에 출국자가 각각 115만 명과 118만 명이었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해 8월에는 155만 명이 비행기나 배를 타고 여행길에 나섰다. 155만 명은 월 단위 출국자 수로는 역대 최고였다. 외유에 동참하는 국민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사용하는 지출액도 연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2분기 해외관광 지출액은 약 50억 달러로 집계돼 1분기의 45억 달러보다 5억 달러 많았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출국자가 늘어난 데는 여러 이유가 꼽힌다. 우선 원화 강세로 환율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여름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1일을 기준으로 1달러는 1천11원, 1유로는 1천383원, 100엔은 995원이었다. 2~3년 전에 비해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출국자가 많아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 명절이나 연휴에 여행을 하는 문화가 보편화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경비를 줄이는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 점도 해외여행자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여행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나는 고등학생을 비롯해 탑승객 476명을 태운 여객선이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전날 밤 인천을 떠나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는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더니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췄다. 이 사고로 인해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했다. 세 명 중 두 명꼴로 목숨을 잃은 엄청난 참사였다. 이에 앞서 2월 18일에는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에서 부산외대 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를 벌이던 중 체육관의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설로 쌓인 눈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한 지붕이 일순간에 떨어져 10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다. 세월호 참사와 마우나 오션 리조트 사고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수학여행과 단체여행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줬다. 또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1학기에는 모든 학교의 수학여행이 중지됐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던 청소년 여행 프로그램도 취소됐다. 2학기에 재개된 수학여행은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사전에 교사들이 숙소와 이동수단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일반화됐다. 또 단체여행의 기준이 150명으로 정해지면서 같은 학년이라도 행선지가 달라지는 사례가 빈발했다. 배를 타야 갈 수 있는 섬은 발길이 끊겼다. 울릉도를 비롯해 충남과 전남, 경남의 도서 지역은 여름철에도 관광객이 급감했다. 게다가 9월 30일 전남 홍도에서 유람선이 좌초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포감을 가중시켰다. 한편 일부 업체와 기관에서는 안전 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각지의 교육청과 해경은 대피 훈련, 재난 대응 훈련을 진행했고, 한 항공사는 공항 이용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기내 안전 수칙과 구명복, 산소마스크 착용법을 알려주는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3

관광주간

관광주간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고 여름과 겨울에 집중되는 여행객을 봄과 가을로 분산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 정부는 2월 열린 관광진흥대회에서 5월 1일부터 11일까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관광주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관광주간에 맞춰 지자체와 관련 업계에서는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관광 시설에서는 무료 개방과 관람 시간 연장 등을 실시하고, 숙박업소와 식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첫 번째 관광주간은 보름 앞서 터진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인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홍보 활동이 중단되고, 축제도 줄줄이 보류되거나 취소됐다.

가을에 벌어진 관광주간은 실질적인 첫 시도였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체는 교통, 숙박, 음식뿐만 아니라 유통, 금융 등에 대해 대대적인 할인에 돌입했다. 관광열차 승차권이 싸게 판매되고, 특정 업체의 렌터카와 주유 비용이 할인됐다. 일부 은행과 카드 회사는 이 기간에 국내여행을 한 사람에게 추가 금리나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지자체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관광협회 등으로 구성된 관광주간 지역협의회는 연령대별 추천 프로그램과 일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관광주간과 함께 '올해의 관광도시' 제도도 도입했다. 올해는 충북 제천, 경남 통영, 전북 무주 등이 관광도시로 선정됐다. 관광도시로 정해지면 관광 시설 확충, 여행 프로그램 발굴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허승영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진흥팀 대리는 "관광주간 평가를 위한 설문을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내년 행사의 시기와 기간, 횡수 등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

요우커(遊客)

중국인 여행객을 의미하는 '요우커'는 일반 명사처럼 쓰일 정도로 회자됐다. 특히 서울 명동과 제주도는 요우커가 '점령'했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중국인이 거리를 누볐다. 중국인은 지난해 432만7천 명이 한국에 들러 국기별 방문자 수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올해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10월까지 방문 중국인이 524만6천 명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연간 방문객은 600만 명 내외로 예상되며, 전체 입국자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5.5%에서 43.7%로 증가했다.

요우커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20대와 30대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 제주공항을 통한 입국자가 146만4천 명으로 매우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올해 10월까지 제주공항을 거쳐 온 일본인이 7만4천 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인의 제주도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인 여행자가 급증하면서 관광수입도 늘어났다. 지난 9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한 금액은 17억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억5천만 달러가 늘었다. 지난해까지 월별 관광수입은 14억 달러를 넘긴 적이 한 차례도 없었지만, 올해는 7~9월에 모두 15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9월 관광수지는 201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성과의 일등 공신은 중국인이었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인 10월 초에는 요우커 부부가 백화점을 찾아 하루에 2억 원가량을 썼다는 기사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요우커의 여행 형태가 변화하는 징후도 감지된다. 한 편의점 업체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은련(銀聯)카드의 결제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제주도의 사용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서울은 증가했다. 또 서울시 내에서도 명동이 있는 중구는 감소했으나 동대문구와 구로구 등은 늘었다. 요우커의 쇼핑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요우커의 여행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은 문제점이다. 좋은 여행 상품 개발과 불친절, 바가지요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5

저비용항공사



기내 서비스를 줄이고 운임을 낮춘 저비용항공사의 고공비행은 올해도 지속됐다. 저비용항공사는 2005년 한성항공이 최초로 취항한 이래 내년이면 10년을 맞는다. 현재 운항 중인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5곳이다.

지난해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선 48%, 국제선 9.6%였다. 올해는 3분기까지 누적 분담률이 국내선은 49.9%, 국제선은 11.4%로 증가했다. 9월까지 국제선 탑승률은 저비용항공사가 82.4%로 대형 항공사보다 6.6% 포인트 높았다. 작년에 한국과 홍콩 정부가 항공 자유화 협정을 맺으면서 항공편이 증가한 인천-홍콩 노선의 경우 1~8월의 국내의 저비용항공사 점유율이 8.2%에서 17.7%로 상승했다.

저비용항공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운항 노선도 늘어나고 있다. 진에어는 9월 말과 10월 초에 제주-취안저우와 제주-시안 노선에 신규 취항했고, 12월에는 인천-후쿠오카와 인천-코타키나발루 노선에 비행기를 띄울 예정이다. 후발 주자인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의 노선망 확충도 눈에 띈다. 이스타항공은 청주를 기점으로 중국 상하이, 옌지, 허얼빈, 다롄을 왕복하는 정기편을 신설했다. 티웨이항공도 인천에서 중국 지난과 하이커우, 일본 오이타로 가는 국제선의 운항을 시작했다. 이에 반해 대한항공은 미국 휴스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취항하는 데 그쳤다.

외국 저비용항공사의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춘추항공은 9월 인천-상하이 노선에 뛰어들었고, 베트남 비엠텡항공은 7월부터 인천-하노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 성장의 이면에는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시선도 존재한다. 양적 팽창이 급속하게 일어나다 보니, 질적 발전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례로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항공사 소비자 피해 중 저비용항공사 관련 비중은 66%였다.



사진 / CJ E&M 제공

6

TV 예능 프로그램

지난해 한 케이블 TV가 제작한 연예인 개별여행 프로젝트인 '꽃보다' 시리즈는 올해도 선풍적인 인기를 이어갔다. 올해 1월에는 크로아티아를 무대로 한 '꽃보다 누나', 3월에는 스페인에서 촬영된 '꽃보다 할배', 여름에는 페루와 라오스로 떠난 '꽃보다 청춘'이 방영됐다.

'꽃보다' 시리즈의 여행지가 알려지면 해당 지역을 다룬 서적이 발행되고, 여행 상품이 만들어질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교보문고의 여행 부문 월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월 4위는 '크로아티아 여행 바이블', 3월 4위는 '프렌즈 스페인 포르투갈', 9월 10위는 '프렌즈 라오스'였다. 스마트폰을 달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구인 '셀카봉' 열풍도 '꽃보다' 시리즈로 인해 일어났다. 방송에서 조명을 받은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개별여행 전문 여행사인 내일투어가 9월까지 판매된 상품의 지역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살펴본 결과, 여행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라오스였다. 올해 라오스 관련 상품을 구매한 사람은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괌, 크로아티아, 스페인, 오키나와 등이 뒤를 이었다. 크로아티아와 스페인은 '꽃보다' 시리즈에 등장했고, 오키나와는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떴다'와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배경이었다. 또 인터넷극투어는 7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페루 항공권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모든 여행지가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여행'이라는 요소가 가미돼 있어서 식상해졌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여행사의 홍보 담당자는 "지금은 드라마나 예능의 로케 장소였다는 이유만으로 화제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며 "여행지의 매력을 제대로 끌어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8

호텔 춘추전국시대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롯데시티호텔 구로, 알로프트 서울 강남 호텔, 이비스 버젓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신라스테이 역삼, 오크라우드. 올해 서울에 문을 연 대규모 호텔들이다. 물론 첫선을 보인 호텔은 다른 지역에도 많다. 아시안게임이 열린 인천에는 네스트 호텔,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훌리데이인 인천 송도가 개관했고, 공항 인근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인천은 객실 500개를 갖춘 웨스트 타워의 운영을 시작했다. 또 켄싱턴 마린 호텔, 롯데시티호텔 제주와 롯데시티호텔 대전도 개장했다. 최근 지어진 호텔은 일반적인 특급 호텔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이 돋보이는 비즈니스호텔이나 아기자기하고 예쁜 부티크 호텔이 많다. 특히 서울 강남구 일대는 비즈니스호텔의 격전지로 꼽힌다. 10월을 전후해 호텔 세 곳이 완공됐고, 12월에는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도미인 프리미어가 영업을 개시한다. 브랜드를 차별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호텔인 신라호텔과 롯데호텔은 비즈니스호텔인 신라스테이와 롯데시티호텔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신라스테이 동탄을 처음 선보인 신라호텔은 2016년까지 제주, 울산, 천안 등에 신라스테이를 개관할 예정이다. 롯데시티호텔 역시 내년에 울산과 장교의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호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무관치 않다. 특히 중국인은 고급 호텔보다 중저가 호텔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요우커의 방한 흐름이 꺾이지 않는 한 호텔 건설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9

면세 한도 600달러

해외에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18년 만에 6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새로운 기준을 9월 5일부터 적용했다. 다만 제주도 방문자의 면세 한도 증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뤄진다. 입국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는 해외여행자가 급격히 늘고, 소득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 원에서 1988년 30만 원(약 400달러)으로 올라간 뒤 실질적으로는 26년간 유지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여행자가 면세 한도 규정을 어겨 과세된 금액은 2011년 158억7천300만 원, 2012년 207억4천200만 원, 2013년 284억5천400만 원으로 늘었다. 그동안 휴대품 면세 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웃한 나라인 중국은 5천 위안(약 815달러), 일본은 20만 엔(약 1천700달러), 대만은 2만 대만달러(약 650달러)로 우리나라보다 모두 높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지난 3월 면세 한도의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 단체가 인상을 건의했고, 정부도 '장기 규제'로 분류돼 있던 문제를 조기에 결론 내기로 결정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편 정부는 입국자가 면세 한도 초과분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기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년부터 30%에서 40%로 올린다. 2회 이상 적발되면 60%가 부과된다. 반면 초과분을 스스로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세액의 30%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 경감분의 한도액은 15만 원이다.



10

러시아 비자 면제



1월 1일부터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비자(사증) 면제 협정이 발효됐다. 한국은 러시아와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동북아시아 국가다. 이에 따라 러시아로 들어가는 여행자는 비자가 없어도 60일 동안 러시아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단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에는 총 체류일이 90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됐다. 따라서 60일간 체류한 뒤 120일 이내에 다시 러시아에 입국하면 30일만 머물 수 있다. 또 무비자 입국 시에도 근무일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주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비자 면제 협정으로 인해 러시아를 여행하려는 사람은 8만~20만 원의 비자 발급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 러시아 입국 시 수속에 걸리는 시간도 3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됐다. 올해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인은 10월까지 18만3천 명이였다. 이는 지난해 전체의 17만5천 명보다 더 많은 수치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에는 20만 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를 찾는 한국인도 늘었다. 외교부는 지난 6월 1분기 러시아에 입국자가 약 2만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항공사들은 양국을 오가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한시적 증편과 비정기편 취항을 실시했다. 대한항공은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에 인천-모스크바 노선과 인천-상트페테르부르크 노선을 각각 2회 늘렸다. 또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제주와 양양을 잇는 전세기가 운항되기도 했다. ⑩

7

유럽

올해 상반기 출판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책은 '내가 사랑한 유럽 톱(Top) 10'이다. 문학평론가 정여울 씨가 쓴 이 책은 여행 서적으로는 드물게 베스트셀러 순위의 첫머리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항공의 캠페인 참가자들이 주제별로 뽑은 유럽의 장소와 테마를 토대로 감성적인 글과 아름다운 사진이 적절히 배치돼 호응을 얻었다. 유럽은 여행 업계에서도 이목을 끌었다. 하나투어가 10월까지 여행 상품의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서유럽은 84.1% 증가했다. 스페인, 터키, 그리스가 포함된 지중해 지역도 52.4% 늘었다. 일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증가율의 폭이 가장 컸다. 실적 통계는 아니지만 다른 여행사가 진행한 설문에서도 유럽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온라인 여행사인 익스피디아가 20~40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유럽은 개별여행으로 가장 가고 싶은 지역 1위로 꼽혔다. 응답자의 34.2%가 유럽을 선택해 동남아, 중국, 일본을 제쳤다.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 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가고자 하지만,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항공 좌석이 늘어났고, 예능 프로그램에 노출되면서 여행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은 항공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좌석이 확보되면 여행자도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